



죽비와 목탁

강지연 기자

jjygang@buddhapia.com



추석,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도 돌보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예년에 비해 빨리 돌아온 추석은 주말을 끼고 있어 귀향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래도 추석은 우리에게 포근한 고향과 풍요로운 웃음을 떠오르게 한다.

요즘 추석이 가지는 풍요로움이 빛바랜듯한 느낌이다. 제2 IMF가 울지도 모른다며 사회는 흥흥하고, 연일 소비자들이는 오히려 모두들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유가는 한 풀 꺾였지만 원화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찬바람 불기만 해 한가지를 시정사정들 사이에선 추석특수가 실종됐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래서일까? 요즘 복지시설에는 후원이 딱 끊겼다고 한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서러울 만큼 기막힌 후원이, 일반 후원이 줄어들었다며 시설 직원들의 시름도 깊어간다.

시설에 머무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외롭고 쓸쓸한 추석을 기다리게 됐다. 지금 내 모습과 다른 TV 속 추석풍경으로 인해 아이들은 ‘추석’을 낯의 일로 등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내 살림살이가 펑펑하니 주변을 돌아볼 여건이, 그럴 여유가 마음에서 사라진 게 사실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위원회에

르던 올 상반기 모금액은 447억 70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13억 2800만원에 비해 65억 5800만원이나 줄었다.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 복지관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추석 명절맞이 행사를 마련하고, 독거어르신을 위한 떡 과일 선물세트나 쌀,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보다 많은 불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보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실정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물질 나눔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남을 위하는 마음 한 번 더 내고 한 번 더 웃어주는 것도 훌륭한 보시의 덕목이다. 재물이 없이도 베퉴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를 말씀하신다.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을 지니는 화안시(和顔施), 칭찬 격려 등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는 언사시(言辭施), 다른 존재에 자비심을 갖는 심시(心施), 온화한 눈길로 보는 안시(眼施), 공손한 태도로 남을 돕는 신시(身施),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상좌시(床座施), 나의 집을 타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방사시(房舍施)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는 것을 아깝까.

은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추석, 내 한 풀 추스르기 어려운 불황이더라도 주변에 환한 미소 한 번 더 보내주는 마음만은 부자, 자, 자비 가득한 불자다운 추석을 맞이하자.

삼보 스님 ‘위법망구’의 메시지는?

10.27법난 때부터 쌓인 종교편향에 분노 ‘불교탄압중단’ 열서·동국대 병원서 치료 범불교도 봉행위 “평화적 방법” 호소

정부의 불교 차별에 항의하는 호법 보살들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한 스님이 위법망구(爲法忘軀: 진리를 위해 몸을 잊음) 정신으로 합법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8월 30일 낮 12시40분경 조계사 대웅전에서 삼척 기원정사 주지 삼보 스님(前 오대산 상원사 주지)은 미리 준비해 온 A4 용지에 ‘이명박 정권은 불교 탄압 중단하라’고 열서를 쓴 다음 흉기로 배를 깊이 5mm, 길이 10cm 가량씩 세 번 자해하고 쓰러졌다. 스님은 조계사 종무원들과 신도들에 의해 발견돼 곧바로 119 대원에게 응급 치료를 받고 경기도 일산 동국대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9월 5일 현재 봉합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삼보 스님의 결연한 의사표현은 8·27 범불교대회 이후 불교계 요 구사항에 대해 목록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항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실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오랜 종교편향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주려는 의미가 짙다.

실제로 삼보 스님은 신군부에 의해 지행된 1980년 10.27 법난 당시 상원사 주지로 있다가 삼정교육대 내 송현클럽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10·27법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자해한 바 있다.

조계종에 따르면 삼보 스님은 이번 8·27 범불교대회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만나 위법망구의 의사표시를 결행할 것임을 밝혔지만, 지관 스님의 만류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보 스님은 범불교대회가 끝난 이틀 뒤 이전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고 말았다.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회 기간 열린 다음날 자신을 지지하는 김진홍 목사 등 뉴라이트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하는 등 불교계를 자극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 이에 스님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오만과 독선의 이명박 대통령을 경책하려는 뜻으로 합법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보 스님의 이러한 의지는 이번 예야 말로 공직자들의 종교 차별 및 편향행위를 종식시키겠다는 스님들의 강한 의지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범불교대회 봉행위 대변인 승원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은 9월 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소통과 상생·평화를 열망하는 범불교대회와 합법 사건을 끝내 외면한다면 이후의 불행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을 종식시키겠다는 불교계의 단호한 의지와 함께, 모든 의사표시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8월 30일 조계사로 긴급 출동한 119대원들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삼보 스님. 사진=조계종 제공

이날 승원 스님이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종식하고 국민화합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뜻은 극단적인 행동보다는 평화적이고 불교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며, 불자들이 극단적 행위를 삼가줄 것을 간곡히 호소할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범불교대회도 앞두고도 일부 스님들이 ‘소지(佛指: 손가락을 태움)’ 또는 ‘소신(燒身: 몸을 태움)’ 공양하겠다는 얘기가 나돌아 봉행위원회가 초긴장 상태로 대회를 의호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볼 때 불교계 요구를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의 불교 무시와 편향이 계속될 경우 제2, 제3의 삼보 스님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특히 추석 이후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을 필두로 한 지역별 범불교대회 이후에도 대통령과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어서 전국승려대회가 개최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생사해탈이란 일대사(一大事)를 해결하기

위해 선방에서 정진중인 수좌들은 육신을 ‘종자루’ 정도로 여기고, 몸뚱이를 버리는 것을 웃길까 입는 정도로 여기는 스님들이 적지 않기에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승려대회는 그동안 침묵하던 불교계의 어른스님들이 모두 동참하는 대중공사란 상징성으로 인해 신도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여당은 목숨을 내건 스님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불교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히 상생평화의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조계종 대변인 승원 스님의 호소는 이러한 불교계의 우려를 담고 있음을 청와대는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s@hanmail.net

10·27법난법 국무회의 통과 위원회 구성준비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10일 이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본격적인 위원회 구성 준비에 돌입했다.

10·27법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위원장 법타 스님은 9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계종 국무총리실장을 만나 주무부처를 국무총리와 문화부로 변경한 뒤 조계종의 주도적인 참여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법타 스님은 “10·27법난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11인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구성 등 후속 실무작업만 남아있다”며 “명예회복심의위원회도 정부측 위원 4명 이외에 차관급 민간위원 7명을 법난 피해자인 불교계 추천인사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불교계는 특별법 공포와 함께 이달 안으로 추진위원회를 대책위원회로 전환한 뒤, 국방부를 배제한 채 민간위원 추천후보 7명을 선출하는 등 관련 후속작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조선왕실의례’ 반환 요청 일본에 남북 공동합의 진행

남북 불교계의 ‘해외불법민중문화재 환수운동’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조선왕실의례(왕실의례) 김원우 전 국회의원, 문화재제자리창회(사무총장 혜진,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등으로 구성된 일본방문단은 9월 4일 일본 수상관저를 찾아 조선왕실의례 반환요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반환요청서 접수는 8월 8일 평양 양강도 호텔에서 남북 조선왕실의례(왕실의례) 김원우 전 국회의원, 문화재제자리창회(사무총장 혜진,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등으로 구성된 일본방문단은 9월 4일 일본 수상관저를 찾아 조선왕실의례 반환요청서를 접수했다.

이민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포교원, 애니메이션 ‘마법 삼국유사’ 제작

불기2552년 추석맞이 불교TV서 방영될 예정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초)은 삼국유사를 어린이·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애니메이션 ‘마법 삼국유사’를 제작했다.

이번 애니메이션은 지난 부처님 오신날 발표된 애니메이션 ‘붓다’에 이어 중단 두 번째 프로젝트로 어린이·청소년 콘텐츠 개발을 위해 9

개월 기간에 걸쳐 제작됐다. ‘마법 삼국유사’는 아리가 문수를 만나 과거로 사라진 지혜문자를 찾는 여정으로 ‘판과식적’ 등 삼국유사 속의 불교일화 4가지로 구성됐다.

‘마법 삼국유사’는 H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불기 2552년 추석을 맞아 불교TV에서 방영 예정이다.

포교원은 “애니메이션 제작에 도움을 준 안국선원과 화성 신홍사 사부대중 모든 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포교용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교원은 각 사찰 청소년 법회 활성화와 효과적 진행을 위해 ‘청소년 설법자료집’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월별 주제모음과 교리별 주제모음, 키워드별 정리패

있으며, CD로도 제작되어 PDF 열람이 가능하다. 각 사찰 및 종합학교에 보급되고 중단 홈페이지에 청소년 법회자료 서비스로 이용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조동성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사건, 단체, 사찰, 승려, 강연,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I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국제불교종단 고승 총연합회 결성 취지 및 선포문

불교가 세상에 탄생 한지가 2600여년이 되었고, 중국의 실크로드를 거쳐 한국에 전래 된지도 1600여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한 유구한 역사 속에 한국불교는 변화를 거듭해왔고 불교의 대중화, 국제화, 불교이념의 울긋불긋한 정착화 등 종교의 시대적 소명과 개혁이 중요한 시점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오늘날 우리불교는 수많은 종단이 설립되어 단일교단간의 화합 단결과 질서 확립, 나아가 불교문화의 활성화, 정보교환, 진정한 종교지도자 육성 등 산적한 과제를 해소하는 길만이 승단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다준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국제불교종단 고승 총연합회는 불교를 범국제적으로 보다 더 발전시키고 영구히 계승 보존하기 위하여 국내외 종단이 하나 되기로 뜻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불교종단은 물론 일본, 중국, 태국, 티벳, 네팔, 스리랑카, 대만 등 범세계적인 종단의 종정들이 뜻을 같이하고 이미 동참하였거나 참여하기로 하였기에 이처럼 성스러운 깨달음으로 창회를 선언하고자 한다.

국내외 불교종단의 종정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호증진 및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세계불교가 하나되고 국제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무너뜨려 세계 평화와 불교정도를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제불교종단 고승 총연합회를 창회했음을 엄숙히 선포하는 바이다.

佛紀 2551년 7월 15일 西紀 2007년 8월 27일



國際佛教宗團 高僧 總聯合會 會員 一同